

Lesson 21

왕의 신하의 믿음

본문: 요한복음 4:43-54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쯤 나온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본문에는 두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온다. 하나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다른 믿음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I.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절과 45절 말씀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44절에서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 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 했다고 했다. 이 말씀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48절 말씀이다.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고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2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표적과 기사 자체만을 원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병 낫고 복 받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낫고 부자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해 질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이 약해 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빌립보서 3:7-11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2)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식, 명예, 부등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긴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 한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요 참신앙이 아니다. 빵쪼각 얻어 먹기 위하여, 병이나 낫기 위하여 예수님 쫓아 다닌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요한복음 2:24).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II.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46-47)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는가? 죽을 병이 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약 10년 전의 일로 기억 된다. 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이다.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날 이른 새벽에 손녀께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에서 들려 오는 소리, “할아버지 엄마가 암이래요” 머리가 하해 지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 가슴이 멍멍해 진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15마일이 떨어진 먼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했을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런 기도는 거의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왕의 신하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있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가? 그런 경우에는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15마일을 달려 가서라도 예수님께 구해야한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다. 진정으로 참 믿음의 시작은 이 간절함에서 온다.

그래서 간절함은 믿음의 시작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간절함에서 나온 사람들을 기적을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두지 않고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15:21-28절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귀신들린 그의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하여 참 믿음으로 발전하여 그 딸의 고침을 받게 된다. 마가복음 10:46-52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와 마태복음 9:22에 나온 혈류병 앓은 여인, 막9장에 나온 간질병

갈릴아들을 둔 아버지의 경우등 수많은 성경에 나온 예들은 간절함에서 시작하여 참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왕의 신하 역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너도 “나를 네 아들의 병이 낫기 위하여 온 사람으로만 아느냐?”고 묻는 것 같다. 나는 그와 같은 표적만을 구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거절에 대하여 왕의 신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의 반응을 눈여겨보자.

그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 마음이 상할번도 한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49). 이 간구는 너무나 간절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 아들이 사는 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이것은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요, 주님께 매달린 기도이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해 보았는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시편에서 수없이 반복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자식을 향한 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픔을 예수님이라면 이해 하고 살려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만 쉽게 답이 없고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면 포기하고 만다. 기도는 간절한 소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 기도는 더 깊은 믿음으로 승화해야 한다. 소원이 간절하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화 한다. 간절함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 하지만 구원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한다.

왕의 신하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를 몰아냈다. 그는 두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50) 말씀은 그 인격 자체이다.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 예수님 인격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하인들을 도중에 만나 그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러나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보다도 더 큰 관심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미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함으로 그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낮게 되었는데를 확인했다.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왔다고 말씀 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낮게 된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이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참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신 구원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살핀다면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사는 삶을 살아 보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말을 순종하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요 8:51).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가?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실려 있는 보물 창고와 같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왕의 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당시 왕은 헤롯이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것이다.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다.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의 삶이 어떠했을가를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올 만큼 믿음이 신실했고 단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믿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겠다.